
월간 일본경제동향

2021년 9월호

Contents

〈통계 요약〉	1
I. 일본 무역 동향	
1. 한일 무역 동향	2
2. 일본 전체 무역 동향	5
II. 일본 직접투자 동향	
1. 한일 직접투자 동향	9
2. 일본 전체 직접투자 동향	10
III. 일본 인적교류 동향	
1. 한일 인적교류 동향	13
2. 일본 전체 인적교류 동향	15
IV. 일본경제 및 일본기업 동향	
1. 일본경제 상황 및 정책 방향	18
2. 일본경제 최근 동향	23
3. 일본기업 최근 동향	25



〈통계 요약〉

한일 무역의 2021년 8월 상황

	수출(백만\$, %)		수입(백만\$, %)		수지(백만\$)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한국 전체	53,211	34.8	51,565	44.0	1,646
일본 부분	2,532	43.7	4,454	25.9	-1,922
일본 비중	4.8		8.6		

주: 증감률은 전년동월대비 수치임

출처: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 자료에 근거하여 작성

일본 전체 무역의 2021년 8월 상황

	2020년 8월	2021년 8월	증감률
수출(백만¥, %)	5,233,082	6,605,091	26.2
수입(백만¥, %)	5,005,107	7,242,258	44.7
수지(백만¥, %)	227,975	-637,167	-

주: 증감률은 전년동월대비 수치임

출처: 재무성 무역통계 보도발표(2021년 9월 29일)에 근거하여 작성

한일 직접투자의 최근 상황

	2021년 5월		2021년 6월		2021년 7월	
	대외직접투자 (Net)	대내직접투자 (Net)	대외직접투자 (Net)	대내직접투자 (Net)	대외직접투자 (Net)	대내직접투자 (Net)
일본 전체(억¥)	11,348	348	6,881	7,509	19,244	-1,273
한국 부분(억¥)	128	18	173	200	74	30
한국 비중(%)	1.1	5.2	2.5	2.7	0.4	-

출처: 일본 재무성 직접투자 관련 속보(2021년 7월 8일, 8월 10일, 9월 8일)에 근거하여 작성

한일 인적교류의 2021년 8월 상황

한국방문 외국인 (명, %)				일본방문 외국인 (명, %)			
	2020년8월	2021년8월	증감률		2020년8월	2021년8월	증감률
전체(교포 포함)	68,797	97,087	41.1	전체	8,658	25,900	199.1
방한 일본인	1,275	2,258	77.1	방일 한국인	749	1,600	113.6
일본인 비중	1.85	2.33		한국인 비중	8.65	6.18	

출처: 한국관광공사 한국관광통계 및 일본정부관광국 방일외객수 통계에 근거하여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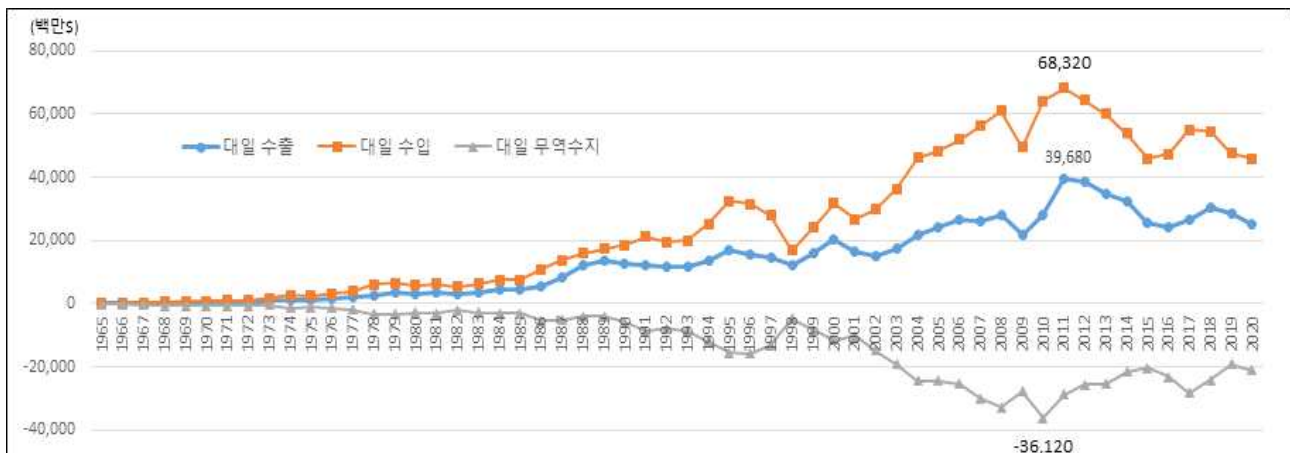
I. 일본 무역 동향

1. 한일 무역 동향

□ 한일 무역의 장기적 추세

- <그림1>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한일 무역구조는 한국이 일본에 대해 만성적으로 적자를 내는 모습이었고, 한일 수출 및 수입의 규모는 2011년에 정점에 달한 이후 추세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음

<그림1> 한일 무역의 장기적 추세



출처: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 자료에 근거하여 작성

- 1965년 이후 통계에서 한 해도 예외 없이 한국의 대일(對日) 무역적자가 이어져 왔음
- 대일 수출은 2011년 683억 달러, 대일 수입은 2011년 397억 달러로 정점에 달한 다음 감소 추세를 보였음
- 대일 무역적자는 2010년 361억 달러로 정점에 달한 다음 감소 추세를 보였음
- 2020년에는 대일 수출과 수입 모두 전년대비 감소하였지만, 수출 감소가 상대적으로 더 커서 대일 무역적자는 전년대비 증가하였음

□ 한일 무역의 최근 추세

- <그림2>를 살펴보면, 2019년 7월 일본의 수출규제 발표 이후 무역에 급격한 변화는 나타나지 않았고, COVID-19 발생 이후 대일(對日) 수출 수입이 감소 후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으나 2021년 8월에는 수출 수입 무역적자 모두 전월대비 감소하였음

〈그림2〉 한일 무역의 최근 월별 추세



출처: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 자료에 근거하여 작성

- 대일 수출은 COVID-19 발생 이후 2020년 4월부터 일시적으로 감소하였다가 다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는데, 2021년 8월에는 전월대비 감소하였음
- 대일 수입은 COVID-19 발생 이후 2020년 4월부터 일시적으로 감소하였다가 다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는데, 2021년 8월에는 전월대비 감소하였음
- 대일 무역적자는 COVID-19 발생 이후 2020년 5월에 일시적으로 감소하였다가 다시 증가 또는 정체하는 추세를 보였는데, 2021년 8월에는 전월대비 감소하였음

□ 한일 무역의 2021년 8월 상황

- <표1>은 한일 무역의 2021년 8월 상황을 나타내고 있는데, 대일(對日) 수출은 전년 동월대비 43.7% 증가하였고, 대일 수입은 동(同) 25.9% 증가하였음

〈표1〉 한일 무역의 2021년 8월 상황

	수출(백만\$, %)		수입(백만\$, %)		수지(백만\$)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한국 전체	53,211	34.8	51,565	44.0	1,646
일본 부분	2,532	43.7	4,454	25.9	-1,922
일본 비중	4.8		8.6		

주: 증감률은 전년동월대비 수치임

출처: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 자료에 근거하여 작성

- 2021년 8월에 한국전체 수출이 전년동월대비 34.8% 증가하여 532.1억 달러가 되었고, 대일 수출은 동(同) 43.7% 증가하여 25.3억 달러가 되었음
- 2021년 8월에 한국전체 수입이 전년동월대비 44.0% 증가하여 515.7억 달러가 되었고, 대일 수입은 동(同) 25.9% 증가하여 44.5억 달러가 되었음

- 2021년 8월에 한국 전체 무역수지는 16.5억 달러 흑자였으나, 대일 무역수지는 19.2억 달러 적자였음
 - 2021년 8월에 한국 무역 전체에서 일본이 차지하는 비중은 수출 경우는 4.8%였고, 수입 경우는 8.6%였음
- <표2> 및 <표3>은 2021년 8월 대일(對日) 수출 및 수입 각각 MTI 코드 2단위 기준 상위 10개 품목의 상황을 나타내고 있는데, 수출 경우는 10개 품목 모두가, 수입 경우는 9개 품목이 전년동월대비 증가하였음

<표2> 한국의 2021년 8월 대일(對日) 수출 상위 10개 품목

순위	품목명	2020년 8월(백만\$, %)			2021년 8월(백만\$, %)		
		수출금액	증감률	수지금액	수출금액	증감률	수지금액
	총계	1,761	-21.5	-1,778	2,532	43.7	-1,922
1	광물성연료	202	-33.6	178	356	76.3	310
2	철강제품	215	-36.5	-123	338	57.3	-352
3	정밀화학제품	162	-4.6	-150	219	34.8	-138
4	석유화학제품	79	-35.8	-135	213	168.9	-75
5	금속광물	121	50.6	71	198	63.5	145
6	전자부품	109	-19.6	-503	181	66.2	-489
7	산업용전자제품	114	-3.6	-72	124	8.6	-75
8	농산물	85	-16.4	67	100	17.2	78
9	기계요소공구및금형	58	-36.6	-35	72	24.1	-43
10	정밀기계	29	-22.7	-353	72	148.6	-485

주: 품목명은 MTI코드 2단위 분류기준에 근거한 것이며, 증감률은 전년동월대비 수치임
출처: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 자료에 근거하여 작성

<표3> 한국의 2021년 8월 대일(對日) 수입 상위 10개 품목

순위	품목명	2020년 8월(백만\$, %)			2021년 8월(백만\$, %)		
		수입금액	증감률	수지금액	수입금액	증감률	수지금액
	총계	3,539	-9.0	-1,778	4,454	25.9	-1,922
1	철강제품	338	-28.9	-123	690	104.4	-352
2	전자부품	612	14.7	-503	670	9.5	-489
3	정밀기계	381	34.4	-353	557	46.2	-485
4	정밀화학제품	311	-22.0	-150	357	14.6	-138
5	석유화학제품	213	-27.0	-135	288	34.8	-75
6	플라스틱제품	213	-3.7	-158	217	2.0	-154
7	산업용전자제품	186	-18.8	-72	199	7.0	-75
8	기초산업기계	205	17.8	-153	194	-5.5	-130
9	수송기계	156	-17.7	-98	178	13.6	-124
10	산업기계	133	-5.5	-86	151	13.8	-92

주: 품목명은 MTI코드 2단위 분류기준에 근거한 것이며, 증감률은 전년동월대비 수치임
출처: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 자료에 근거하여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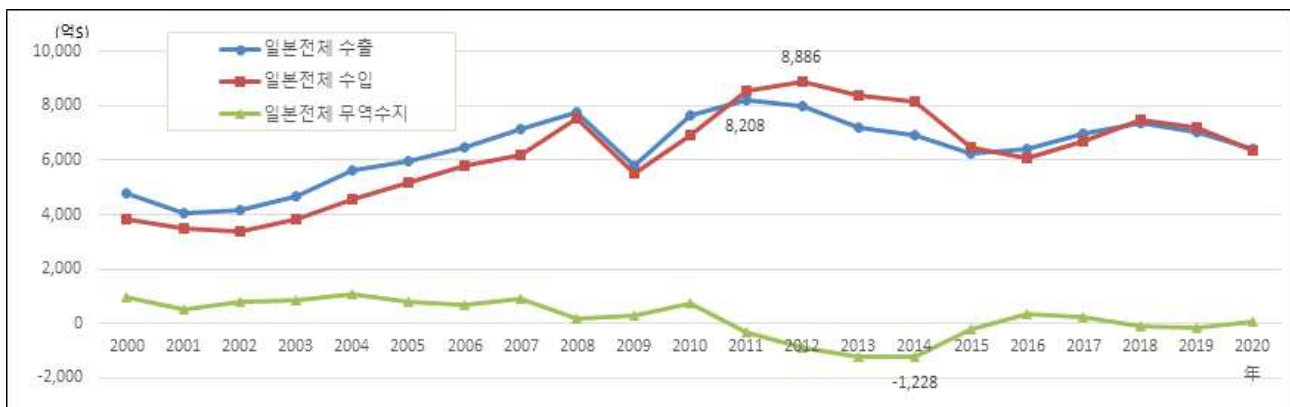
- 수출 경우는 상위 10개 품목 중 석유화학제품(168.9%), 정밀기계(148.6%), 광물성연료(76.3%) 등 10개 품목 모두 전년동월대비 증가하였음
- 수입 경우는 상위 10개 품목 중 기초산업기계(-5.5%)는 전년동월대비 감소하였으나, 철강제품(104.4%) 등 나머지 9개 품목은 모두 전년동월대비 증가하였음

2. 일본 전체 무역 동향

□ 일본 전체 무역의 장기적 추세

- <그림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본은 2010년까지는 무역흑자를 달성해 왔으나, 동일본대지진이 발생한 2011년 이후 무역적자가 나타나기 시작함

<그림3> 일본 전체 무역의 장기적 추세



주: 각 수치는 재무성 엔화 기준 무역통계 자료를 JETRO가 달러로 환산한 값임
출처: JETRO 무역통계 자료에 근거하여 작성

- 수출은 2011년에 8,208억 달러로 정점에 달한 이후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음
- 수입은 2012년에 8,886억 달러로 정점에 달한 이후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음
- 무역수지는 동일본대지진 영향으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적자, 2016년과 2017년 흑자, 2018년과 2019년 적자를 보인 후 2020년에 흑자로 전환함
- 2019년 일본전체 수출은 7,057억 달러, 수입은 7,208억 달러, 무역수지는 151억 달러 적자였음
- 2020년 일본전체 수출은 6,400억 달러, 수입은 6,341억 달러로 수출 및 수입 규모는 전년대비 감소하였지만, 무역수지는 59억 달러 흑자였음

□ 일본 전체 무역의 2021년 8월 상황

- <표4>는 일본전체 무역의 2021년 8월 상황을 나타내고 있는데, 수출과 수입 모두 전년동월대비 증가하였고, 무역수지 경우는 전년동월 흑자에서 적자로 전환됨

<표4> 일본 전체 무역의 2021년 8월 상황

	2020년 8월	2021년 8월	증감률
수출(백만¥, %)	5,233,082	6,605,091	26.2
수입(백만¥, %)	5,005,107	7,242,258	44.7
수지(백만¥, %)	227,975	-637,167	-

주: 증감률은 전년동월대비 수치임

출처: 재무성 무역통계 보도발표(2021년 9월 29일)에 근거하여 작성

- 수출은 철강, 반도체등제조장치, 자동차부분품 등의 증가로 전년동월대비 26.2% 증가하여 6조 6,051억 엔이 되었음
 - 수입은 원조유(原粗油), 의약품, 액화천연가스 등의 증가로 전년동월대비 44.7% 증가하여 7조 2,423억 엔이 되었음
 - 무역수지는 전년동월 2,280억 엔 흑자에서 6,372억 엔 적자로 전환됨
- <표5>는 일본전체 무역의 2021년 8월 지역별 상황을 나타내고 있는데, 수출과 수입 모두 전반적으로 전년동월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아시아 지역은 전체 수출의 58.8%, 수입의 46.6%를 차지하였는데, 수출과 수입 모두 전년동월대비 증가하였고, 일본의 對아시아 무역수지는 5,106억 엔 흑자였음
 - 중국은 제1위 무역 상대국으로서 수출의 21.5%, 수입의 22.5%를 차지하였는데, 수출 수입 모두 전년동월대비 증가하였고, 일본의 대중(對中) 무역적자는 2,082억 엔이었음
 - 홍콩은 수출의 5.1%, 수입의 0.1%를 차지하였는데, 수출 수입 모두 전년동월대비 증가하였고, 일본의 對홍콩 무역흑자는 3,264억 엔이었음
 - 대만은 수출의 7.9%, 수입의 4.5%를 차지하였는데, 수출 수입 모두 전년동월대비 증가하였고, 일본의 對대만 무역흑자는 1,971억 엔이었음
 - 한국은 수출의 7.2%, 수입의 3.8%를 차지하였는데, 수출 수입 모두 전년동월대비 증가하였고, 일본의 대한(對韓) 무역흑자는 2,014억 엔이었음
 - 미국은 수출의 17.4%, 수입의 10.5%를 차지하였는데, 수출 수입 모두 전년동월대비 증가하였고, 일본의 대미(對美) 무역흑자는 3,929억 엔이었음
 - 서유럽 전체에 대해 수출 수입 모두 전년동월대비 증가하였음
 - 독일은 수출의 2.8%, 수입의 2.9%를 차지하였음
 - 영국은 수출의 1.2%, 수입의 0.9%를 차지하였음

〈표5〉 일본 전체 무역의 2021년 8월 지역별 상황

	수출(백만¥, %)			수입(백만¥, %)			수지(백만¥, %)	
	수출금액	구성비	증감률	수입금액	구성비	증감률	수지금액	증감률
총액	6,605,091	100.0	26.2	7,242,258	100.0	44.7	-637,167	-
아시아	3,881,891	58.8	26.1	3,371,282	46.6	30.4	510,609	3.3
중국	1,421,093	21.5	12.6	1,629,338	22.5	23.3	-208,245	246.7
홍콩	335,483	5.1	23.4	9,095	0.1	59.9	326,388	22.7
대만	520,991	7.9	42.4	323,861	4.5	54.8	197,130	25.8
대한민국	478,463	7.2	31.5	277,082	3.8	40.7	201,381	20.5
싱가포르	181,709	2.8	51.9	87,774	1.2	36.9	93,935	69.1
태국	293,711	4.4	54.2	245,741	3.4	33.9	47,970	588.3
말레이시아	116,349	1.8	5.0	169,725	2.3	37.9	-53,376	332.0
인도네시아	109,304	1.7	99.9	206,213	2.8	69.1	-96,909	44.0
필리핀	97,793	1.5	27.9	95,306	1.3	16.5	2,487	-
베트남	140,948	2.1	-4.4	194,315	2.7	3.9	-53,367	34.9
인도	119,197	1.8	56.1	56,951	0.8	53.8	62,246	58.2
대양주	163,316	2.5	21.9	581,682	8.0	101.8	-418,366	171.2
호주	112,794	1.7	15.5	526,278	7.3	118.7	-413,484	189.3
뉴질랜드	27,823	0.4	103.2	29,656	0.4	50.0	-1,833	-69.9
북미	1,213,196	18.4	21.5	892,231	12.3	34.3	320,965	-3.9
미국	1,150,560	17.4	22.8	757,643	10.5	33.6	392,917	6.3
캐나다	62,636	0.9	1.9	133,758	1.8	38.6	-71,122	102.7
중남미	256,827	3.9	84.5	300,929	4.2	24.1	-44,102	-57.3
서유럽	688,284	10.4	14.1	962,928	13.3	48.5	-274,644	503.3
독일	186,721	2.8	28.3	211,403	2.9	33.3	-24,682	90.0
영국	81,667	1.2	-5.8	63,299	0.9	20.6	18,368	-46.3
프랑스	53,952	0.8	24.7	118,056	1.6	73.5	-64,104	158.8
네덜란드	110,590	1.7	29.1	27,973	0.4	41.2	82,617	25.5
이탈리아	46,512	0.7	65.8	110,830	1.5	18.7	-64,318	-1.6
중부동부유럽/러시아등	163,128	2.5	38.6	165,130	2.3	17.3	-2,002	-91.3
중동	147,300	2.2	41.7	839,639	11.6	122.7	-692,339	153.6
아프리카	91,149	1.4	57.6	128,431	1.8	117.5	-37282	2996.2

주: 증감률은 전년동월대비 수치임

출처: 재무성 무역통계 보도발표(2021년 9월 29일)에 근거하여 작성

- <표6>은 일본전체 무역의 2021년 8월 품목별 상황을 나타내고 있는데, 수출 수입 양쪽에서 모든 품목이 전년동월대비 증가하였음
- 수출 경우는 광물성연료(153.5%), 원료품(48.9%) 등 9개 품목 모두 전년동월대비 증가하였음
 - 수출 경우 증가기여도 측면에서는 일반기계(6.0%), 원료별제품(4.9%), 기타(3.9%), 화학제품(3.6%) 등의 순으로 전년동월대비 증가하였음
 - 수입 경우는 광물성연료(104.1%), 원료품(76.8%) 등 9개 품목 모두 전년동월대비 증가하였음
 - 수입 경우 증가기여도 측면에서는 광물성연료(15.8%), 화학제품(6.6%), 원료품(5.5%) 등의 순으로 전년동월대비 증가하였음

<표6> 일본 전체 무역의 2021년 8월 품목별 상황

	수출(백만¥, %)				수입(백만¥, %)			
	수출금액	구성비	증감률	증감기여도	수입금액	구성비	증감률	증감기여도
총액	6,605,091	100.0	26.2	26.2	7,242,258	100.0	44.7	44.7
1 식료품	83,493	1.3	29.2	0.4	633,172	8.7	21.0	2.2
2 원료품	112,932	1.7	48.9	0.7	632,577	8.7	76.8	5.5
3 광물성연료	93,951	1.4	153.5	1.1	1,547,484	21.4	104.1	15.8
4 화학제품	850,827	12.9	28.5	3.6	869,217	12.0	61.0	6.6
5 원료별제품	842,300	12.8	43.6	4.9	694,396	9.6	52.1	4.8
6 일반기계	1,298,931	19.7	31.7	6.0	629,920	8.7	18.9	2.0
7 전기기기	1,233,198	18.7	17.1	3.4	1,022,891	14.1	23.9	3.9
8 수송용기기	1,153,101	17.5	11.5	2.3	254,988	3.5	28.0	1.1
9 기타	936,358	14.2	27.7	3.9	957,613	13.2	17.5	2.9

주: 증감률은 전년동월대비 수치임

출처: 재무성 무역통계 보도발표(2021년 9월 29일)에 근거하여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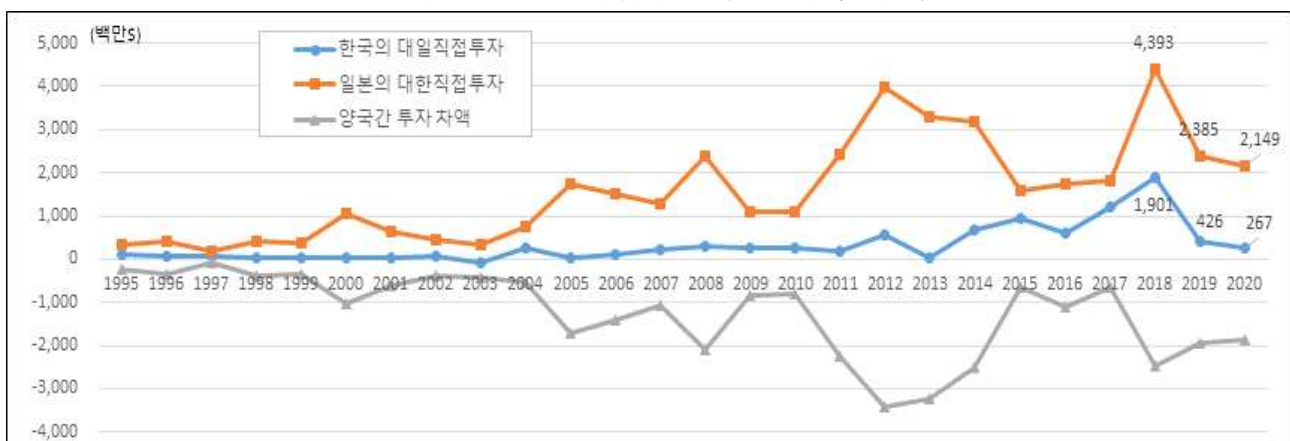
II. 일본 직접투자 동향

1. 한일 직접투자 동향

□ 한일 직접투자의 장기적 추세

- <그림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본의 대한(對韓)직접투자 금액(국제수지 기준)은 한국의 대일(對日)직접투자 금액(국제수지 기준)을 상회하는 추세를 보여 왔음

<그림4> 한일 직접투자의 장기적 추세



주: 해외직접투자 순(net)투자 기준(일본 재무성 및 일본은행 발표의 국제수지통계를 달러로 환산)이며, 국제수지통계 기준 변경에 따라 2013년 이전과 2014 이후 데이터의 연속성은 없음

출처: JETRO 직접투자통계에 근거하여 작성

- 한국의 대일직접투자자와 일본의 대한직접투자자는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여 왔으나,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 왔음
- 하지만 2019년 및 2020년에는 한국의 대일직접투자자와 일본의 대한직접투자 양쪽 모두 전년대비 크게 감소하였는데, 한일간 갈등 및 COVID-19가 양국의 상호 직접투자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됨
- 2020년 한국의 대일직접투자자는 2.67억 달러였는데, 이는 일본의 대내직접투자 전체 659.77억 달러의 0.41%를 차지하였음
- 2020년 일본의 대한직접투자자는 21.49억 달러였는데, 이는 일본의 대외직접투자 전체 1,711.23억 달러의 1.26%를 차지하였음

□ 한일 직접투자의 최근 상황

○ <표7>은 한일 양국간 직접투자의 최근 상황을 보여주고 있음

<표7> 한일 직접투자의 최근 상황

	2021년 5월		2021년 6월		2021년 7월	
	대외직접투자 (Net)	대내직접투자 (Net)	대외직접투자 (Net)	대내직접투자 (Net)	대외직접투자 (Net)	대내직접투자 (Net)
일본 전체(억¥)	11,348	348	6,881	7,509	19,244	-1,273
한국 부분(억¥)	128	18	173	200	74	30
한국 비중(%)	1.1	5.2	2.5	2.7	0.4	-

출처: 일본 재무성 직접투자 관련 속보(2021년 7월 8일, 8월 10일, 9월 8일)에 근거하여 작성

- 일본의 대외직접투자 전체 순투자는 2021년 6월 6,881억 엔에서 7월 19,244억 엔으로 증가하였음
- 한편, 일본의 대한(對韓)직접투자(대외직접투자 중 한국부분) 순투자는 6월 173억 엔에서 7월 74억 엔으로 감소하였고, 일본의 대외직접투자 전체 순투자에서 차지하는 한국 비중은 2.5%에서 0.4%로 감소하였음
- 일본의 대내직접투자 전체 순투자는 2021년 6월 7,509억 엔으로 플러스였으나, 7월에는 회수가 실행보다 많아 순투자가 마이너스인 -1,273억 엔으로 되었음
- 한편, 한국의 대일(對日)직접투자(대내직접투자 중 한국부분) 순투자는 2021년 6월 200억 엔에서 7월 30억 엔으로 감소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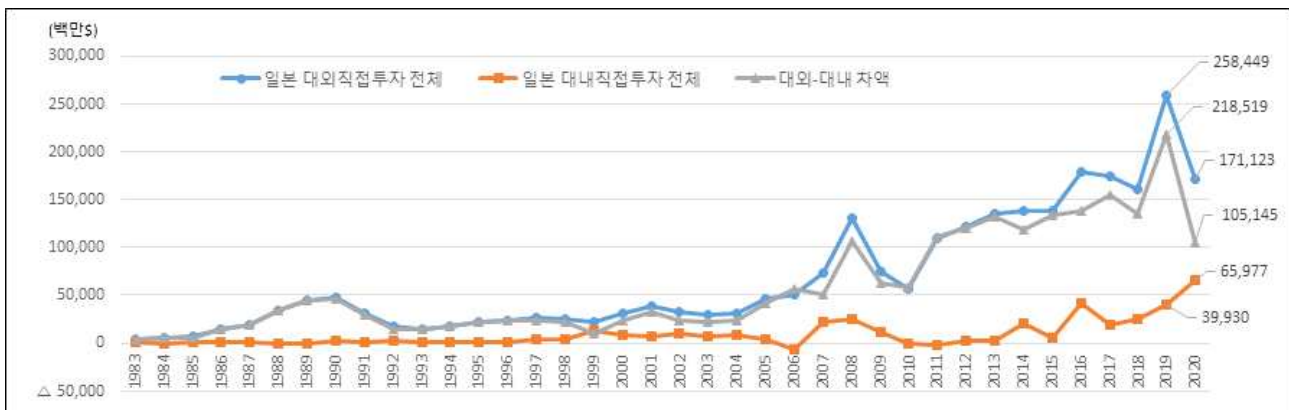
2. 일본 전체 직접투자 동향

□ 일본 전체 직접투자의 장기적 추세

- <그림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본의 대외직접투자 금액(국제수지 기준)은 대내직접투자 금액(국제수지 기준)을 상회하는 추세를 보여 왔음
- 일본의 대외직접투자는 1985년 플라자합의를 계기로 급증한 이후 버블 붕괴로 감소 추세로 돌아섰으나, 2000년대 후반부터 본격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 왔음
- 그에 반해 대내직접투자는 2016년 이후 조금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전반적으로 저조한 추세를 보여 왔음
- 대내직접투자가 저조했기 때문에 대외-대내 차액은 대외직접투자 경우와 유사한 추세를 보여 왔음

- 2019년 대외직접투자는 사상 최고인 2,584억 달러인 반면 대내직접투자는 399억 달러에 불과해 대외-대내 차액은 사상최대인 2,185억 달러에 달했음
- 한편 2020년에는 대외직접투자는 전년대비 감소하여 1,711억 달러로 되었지만, 대내직접투자는 전년대비 증가하여 사상최대인 660억 달러에 달했으며, 대외-대내 차액은 전년대비 감소하여 1,051억 달러로 되었음
- 2020년 일본의 무역수지가 59억 달러 흑자였던 것을 고려하면, 오늘날 일본은 무역대국이 아니라 직접투자 대국으로 전환하였다고 할 수 있음

〈그림5〉 일본 전체 직접투자의 장기적 추세



주: 해외직접투자 순(net)투자 기준(일본 재무성 및 일본은행 발표의 국제수지통계를 달러로 환산)이며, 국제수지통계 기준 변경에 따라 2013년 이전과 2014 이후 데이터의 연속성은 없음

출처: JETRO 직접투자통계에 근거하여 작성

□ 일본 직접투자의 최근 상황

- <표8>은 2021년 7월 일본전체의 직접투자 상황을 보여주고 있음
 - 대외직접투자는 19,244억 엔이었으며, 대내직접투자는 -1,273억 엔이었음
- 대외직접투자 전체 순투자는 실행이 회수보다 많아 19,244억 엔(실행 45,768; 회수 26,524)으로 플러스였음
 - 대외직접투자 순투자는 지역별로 북미(69.9%), 아시아(13.7%)와 유럽(7.6%), 중남미(6.8%), 대양주(1.4%) 등의 순으로 이루어졌음
 - 단일 국가 기준에서는 미국(12,992억 엔), 영국(893억 엔), 중국(884억 엔) 등에 대한 순투자가 많았음
- 대내직접투자 전체 순투자는 회수가 실행보다 많아 -1,273억 엔(실행 62,249 회수 63,521)으로 마이너스였음
 - 대내직접투자 순투자는 지역별로 북미, 대양주, 중남미, 중동은 플러스였고,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는 마이너스였음

- 단일 국가 기준에서 플러스 순투자가 큰 곳은 미국(591억 엔), 싱가포르(455억 엔) 등이었고, 마이너스 순투자가 큰 곳은 영국(-666억 엔), 홍콩(-522억 엔), 중국(-308억 엔) 등이었음

〈표8〉 일본 전체 직접투자의 2021년 7월 상황

	대외직접투자(억 엔, %)				대내직접투자(억 엔, %)			
	실행 Execution	회수 Withdrawal	순투자 Net	순투자 구성비	실행 Execution	회수 Withdrawal	순투자 Net	순투자 구성비
합계	45,768	26,524	19,244	100.0	62,249	63,521	-1,273	100.0
아시아	8,960	6,326	2,633	13.7	5,540	5,925	-384	30.2
중국	1,366	482	884	4.6	679	987	-308	24.2
홍콩	674	191	483	2.5	914	1,436	-522	41.0
대만	126	46	80	0.4	53	22	31	-2.4
한국	268	194	74	0.4	32	2	30	-2.4
싱가포르	4,809	4,873	-65	-0.3	3,529	3,074	455	-35.7
태국	464	152	312	1.6	306	387	-81	6.4
인도네시아	577	129	448	2.3	—	—	—	—
말레이시아	174	80	95	0.5	23	17	6	-0.5
필리핀	182	77	104	0.5	—	—	—	—
베트남	232	53	179	0.9	—	—	—	—
인도	141	21	121	0.6	4	—	4	-0.3
북미	22,923	9,466	13,457	69.9	8,607	8,012	595	-46.7
미국	21,938	8,946	12,992	67.5	8,601	8,010	591	-46.4
캐나다	985	520	464	2.4	6	2	5	-0.4
중남미	1,985	676	1,309	6.8	400	397	3	-0.2
멕시코	160	94	66	0.3	—	1	-1	0.1
브라질	100	55	44	0.2	—	—	—	—
케이만제도	809	17	793	4.1	353	341	12	-0.9
대양주	577	307	271	1.4	1,766	1,587	179	-14.1
호주	330	28	303	1.6	447	271	176	-13.8
뉴질랜드	77	73	5	0.0	10	—	10	-0.8
유럽	10,645	9,184	1,461	7.6	45,931	47,489	-1,558	122.4
독일	1,817	1,711	106	0.6	1,630	1,445	186	-14.6
영국	2,290	1,397	893	4.6	39,341	40,006	-666	52.3
프랑스	253	342	-89	-0.5	462	363	99	-7.8
네덜란드	673	657	16	0.1	2,709	2,869	-161	12.6
이탈리아	36	1	34	0.2	7	8	-1	0.1
벨기에	2,127	1,925	203	1.1	647	647	-1	0.1
룩셈부르크	1,014	761	253	1.3	83	14	69	-5.4
스위스	150	492	-342	-1.8	674	850	-175	13.7
스웨덴	66	116	-50	-0.3	15	8	7	-0.5
스페인	39	13	26	0.1	152	152	0	0.0
러시아	44	12	31	0.2	—	—	—	—
중동	71	115	-44	-0.2	4	2	2	-0.2
아프리카	607	450	157	0.8	0	110	-110	8.6

출처: 일본 재무성 직접투자 관련 속보(2021년 9월 8일)에 근거하여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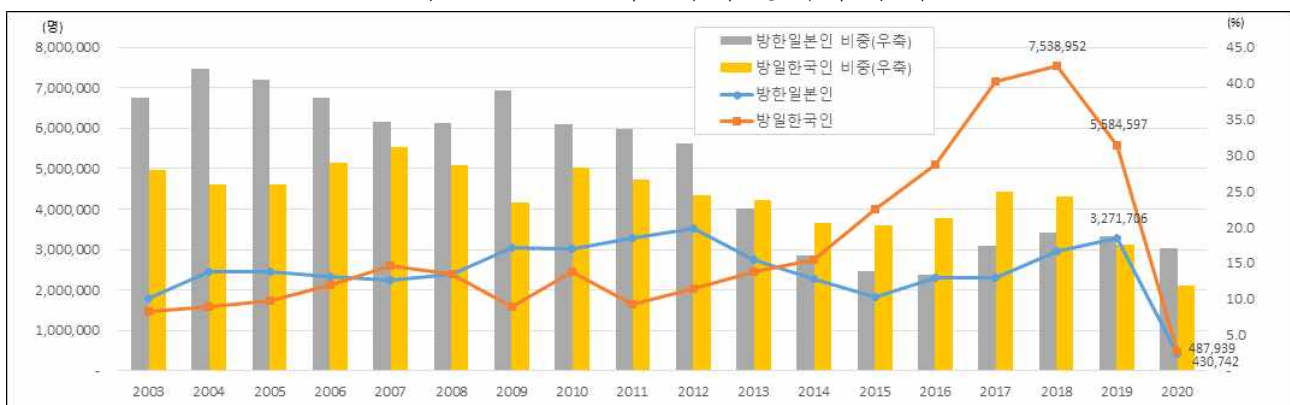
Ⅲ. 일본 인적교류 동향

1. 한일 인적교류 동향

□ 한일 인적교류의 장기적 추세

- <그림6>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4년부터 방일한국인 수가 방한일본인 수를 초월하였으나, 2019년에 방일한국인 수가 크게 감소하였고, 2020년에는 방일한국인 및 방한일본인 양쪽 모두 급감하였음

<그림6> 한일 인적교류의 장기적 추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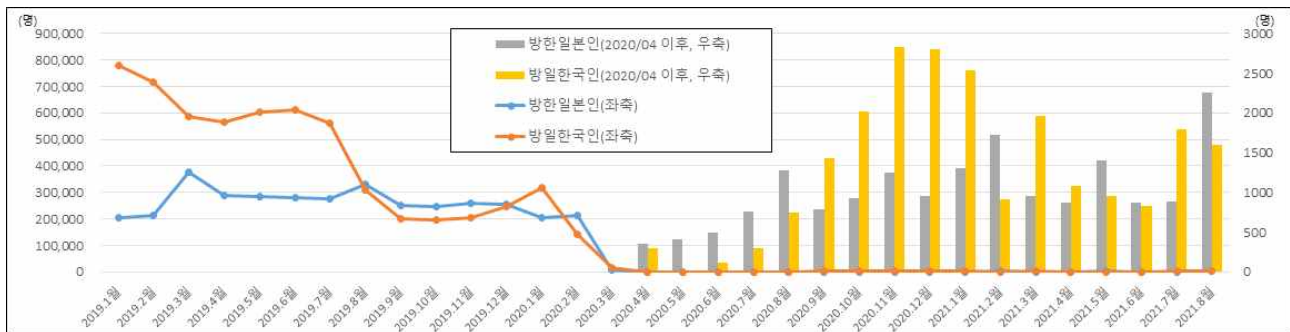
출처: 한국관광공사 한국관광통계 및 일본정부관광국 방일외객수 통계에 근거하여 작성

- 방한일본인 수는 2013년부터 감소 추세를 보이다가 2016년부터 다시 증가 추세로 바뀌었고, 2019년에는 한일 갈등에도 불구하고 전년대비 증가하여 약 327만 명에 달하였으나, 2020년에는 COVID-19 영향으로 약 43만 명으로 급감하였음
- 방한외국인 중 일본인 비중은 2004년에는 42.0%에 달할 정도로 높았으나 이후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는데, 이 또한 방한외국인 전체 수가 2000년대 중반 이후 크게 증가해 왔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됨(2019년 방한외국인 총수는 약 1,750만 명, 2020년은 예외적으로 약 252만 명)
- 방일한국인 수는 2012년부터 증가 추세를 보여 2018년에 약 754만 명으로 정점에 달한 이후, 2019년에는 일본의 수출규제 영향으로 크게 감소하여 약 558만 명이 되었고, 2020년에는 COVID-19 영향으로 약 49만 명으로 급감하였음
- 방일외국인 중 한국인 비중은 2010년대 방일한국인 수 증가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는데, 이는 방일외국인 전체 수가 크게 증가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됨(방일외국인 총수는 2019년 약 3,188만 명, 2020년은 예외적으로 약 412만 명)

□ 한일 인적교류의 최근 추세

- <그림7>은 한일 인적교류의 최근 월별 추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2020년 3월부터 COVID-19 영향으로 방한일본인 방일한국인 양쪽 모두 급격하게 감소하였으나 이후 미미하지만 증가 또는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그림7〉 한일 인적교류의 최근 월별 추세



출처: 한국관광공사 한국관광통계 및 일본정부관광국 방일외객수 통계에 근거하여 작성

- 방한일본인 수는 일본의 수출규제 발표 이후에도 큰 변화 없이 월 25만 명 전후를 유지해 오다가 2020년 3월부터 급감하였음
- 방한일본인 수는 COVID-19 영향으로 2020년 3월부터 급감하였다가 이후 미미하지만 증가 또는 감소하는 추세를 보임(2020년 1월 203,969명, 2월 211,199명, 3월 8,347명, 4월 360명, 5월 413명, 6월 498명, 7월 755명, 8월 1,275명, 9월 794명, 10월 927명, 11월 1,254명, 12월 951명, 2021년 1월 1,299명, 2월 1,719명, 3월 949명, 4월 872명, 5월 1,403명, 6월 875명, 7월 881명, 8월 2,258명)
- 방일한국인 수는 2019년 8월부터 급격한 감소 추세를 보였으나, 11월에 증가 추세로 돌아섰다가 2020년 2월부터 감소 그리고 3월부터 급감하였음
- 방일한국인 수는 COVID-19 영향으로 2020년 3월부터 급감하였다가 이후 미미하지만 증가 또는 감소하는 추세를 보임(2020년 1월 316,812명, 2월 143,896명, 3월 16,669명, 4월 299명, 5월 18명, 6월 122명, 7월 294명, 8월 749명, 9월 1,426명, 10월 2,021명, 11월 2,825명, 12월 2,808명, 2021년 1월 2,535명, 2월 910명, 3월 1,956명, 4월 1,076명, 5월 950명, 6월 800명, 7월 1,800명, 8월 1,600명)

□ 한일 인적교류의 2021년 8월 상황

- <표5>는 한일 인적교류의 2021년 8월 상황을 나타내고 있는데, 교류인원이 COVID-19로 전년동월대비로는 크게 감소하였지만, 전년동월대비로는 증가하였음

<표9> 한일 인적교류의 2021년 8월 상황

한국방문 외국인 (명, %)				일본방문 외국인 (명, %)			
	2020년8월	2021년8월	증감률		2020년8월	2021년8월	증감률
전체(교포 포함)	68,797	97,087	41.1	전체	8,658	25,900	199.1
방한 일본인	1,275	2,258	77.1	방일 한국인	749	1,600	113.6
일본인 비중	1.85	2.33		한국인 비중	8.65	6.18	

출처: 한국관광공사 한국관광통계 및 일본정부관광국 방일외객수 통계에 근거하여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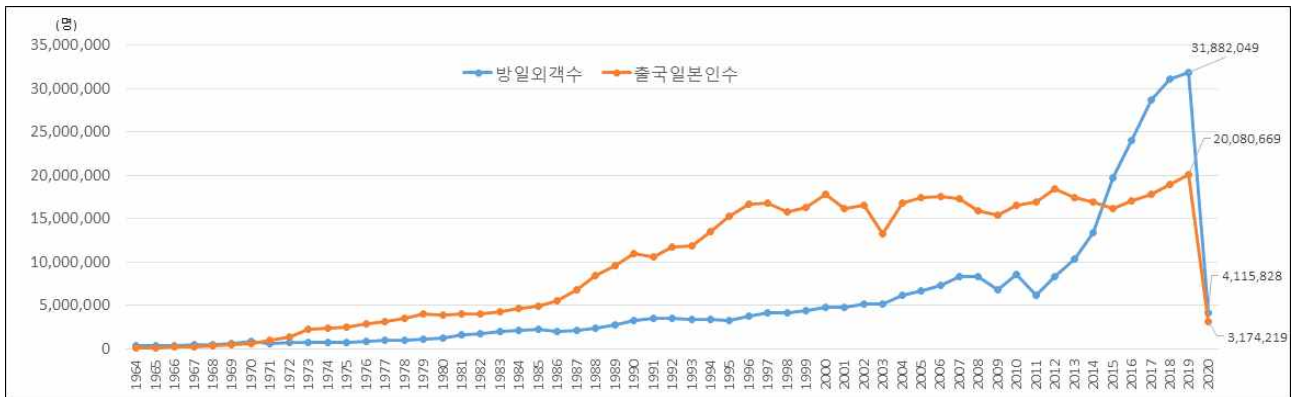
- 2021년 8월 방한외국인(교포 포함) 전체 수는 97,087명으로 전년동월대비 41.1% 증가하였고, 방한일본인 수는 2,258명으로 전년동월대비 77.1% 증가하였음
- 방한외국인 중 일본인 비중은 2020년 8월 1.85%에서 2021년 8월 2.33%로 증가하였음
- 2021년 8월 방일외국인 전체 수는 25,9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99.1% 증가하였고, 방일한국인 수는 1,6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13.6% 증가하였음
- 방일외국인 중 한국인 비중은 2020년 8월 8.65%에서 2021년 8월 6.18%로 감소하였음

2. 일본 전체 인적교류 동향

□ 일본 전체 인적교류의 장기적 추세

- <그림8>은 일본 인적교류의 장기적 추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2015년 이후 방일외객수가 출국일본인수를 초월하였으나, 2020년에는 COVID-19 영향으로 양쪽 모두 전년대비 크게 감소하였음
- 1964년 이후 1970년까지는 방일외객수가 출국일본인수를 초월하였으나 1971년부터 후자가 전자를 초월하기 시작함
- 1971년부터 2014년까지 출국일본인수가 방일외객수를 초월하였으나, 2015년부터 후자가 전자를 초월하기 시작함
- 아베 정부의 적극적인 외국관광객 유치로 인해 방일외객수는 2020년에 약 3,188만 명에 달하였는데, 이는 일본출국자수 약 2,008만 명보다 약 1,180만 명 더 많음
- 2020년에는 COVID-19 영향으로 인해 방일외객수와 출국일본인수 양쪽 모두 전년대비 크게 감소하여 각각 약 412만 명과 약 317만 명으로 됨

〈그림8〉 일본 전체 인적교류의 장기적 추세



출처: 일본정부관광국 통계에 근거하여 작성

□ 일본 인적교류의 2021년 8월 상황

- <표10>은 2021년 8월 방일외객수의 국가별 상황을 나타내고 있는데, 그 수가 COVID-19 영향으로 전년동월대비로는 크게 감소하였지만, 전년동월대비로는 일부 국가를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증가하였음
- 2021년 8월 방일외객 전체 수는 25,9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99.1% 증가하였음
- 방일외객 중 한국인 수는 1,600명으로 전체의 6.2%를 차지하였으며, 이는 전년동월 대비 113.6% 증가한 수치임
- 방일외객 중 중국인 수는 2,400명으로 전체의 9.3%를 차지하였으며, 이는 전년동월 대비 49.4% 증가한 수치임
- 방일외객 중 대만인 수는 400명으로 전체의 1.5%를 차지하였으며, 이는 전년동월 대비 10.7% 감소한 수치임
- 방일외객 중 홍콩인 수는 100명으로 전체의 0.4%를 차지하였으며, 이는 전년동월 대비 143.9% 증가한 수치임
- 방일외객 중 태국인 수는 300명으로 전체의 1.2%를 차지하였으며, 이는 전년동월 대비 14.3 감소한 수치임
- 방일외객 중 미국인 수는 3,000명으로 전체의 11.6%를 차지하였으며, 이는 전년동월 대비 329.8% 증가한 수치임
- 방일외객 중 프랑스인 수는 1,800명으로 전체의 6.9%를 차지하였으며, 이는 전년동월 대비 696.5% 증가한 수치임

〈표 10〉 방일외객수의 2021년 8월 상황

국가·지역	2020년 8월		2021년 8월		전년동월대비 증감률(%)
	방일외객수(명)	비중(%)	방일외객수(명)	비중(%)	
전체	8,658	100.0	25,900	100.0	199.1
한국	749	8.7	1,600	6.2	113.6
중국	1,606	18.5	2,400	9.3	49.4
대만	448	5.2	400	1.5	-10.7
홍콩	41	0.5	100	0.4	143.9
태국	350	4.0	300	1.2	-14.3
싱가포르	21	0.2	90	0.3	328.6
말레이시아	223	2.6	200	0.8	-10.3
인도네시아	230	2.7	600	2.3	160.9
필리핀	132	1.5	400	1.5	203.0
베트남	1,122	13.0	400	1.5	-64.3
인도	278	3.2	300	1.2	7.9
호주	90	1.0	500	1.9	455.6
미국	698	8.1	3,000	11.6	329.8
캐나다	81	0.9	500	1.9	517.3
멕시코	7	0.1	200	0.8	2757.1
영국	150	1.7	1,300	5.0	766.7
프랑스	226	2.6	1,800	6.9	696.5
독일	112	1.3	1,000	3.9	792.9
이탈리아	51	0.6	600	2.3	1076.5
러시아	62	0.7	800	3.1	1190.3
스페인	46	0.5	600	2.3	1204.3
중동지역	69	0.8	700	2.7	914.5
기타	1,866	21.6	8,110	31.3	334.6

출처: 일본정부관광국 통계에 근거하여 작성

Ⅳ. 일본경제 및 일본기업 동향

1. 일본경제 상황 및 정책 방향

□ 일본 정부의 2021년 9월 경제 상황 판단 (내각부 월례경제보고, 2021년 9월 16일)

○ 일본 경제의 최근 주요 지표는 <표11>과 같음

<표11> 일본 주요 경제지표

	2019년	2020년	2020년 10-12월	2021년 1-3월	2021년 4-6월	2021년 5월	2021년 6월	2021년 7월	2021년 8월
<GDP> 실질국내총지출(GDP)	0.0	-4.6	-0.9	-1.3	7.6				
<개인소비> 실질총고용자소득	0.5	-1.9	-1.6	-0.5	2.1	3.1	1.1		
<민간설비투자> 자본재출하지수(수송기계제외)	-5.8	-9.5	-0.4	5.2	22.7	23.6	23.8	21.2	
<주택건설> 신설주택착공호수(만호) 증감률	90.5 -4.0	81.5 -9.9	80.5 -7.0	83.0 -1.6	87.5 8.1	87.5 9.9	86.6 7.3	92.6 9.9	
<공공투자> 공공공사 수주액	10.1	5.5	8.5	9.1	11.6	14.6	9.5	-12.6	
<수출입> 수출수량 수입수량	-4.3 -1.1	-11.8 -6.4	-1.8 -3.2	4.6 6.0	34.4 5.2	38.5 6.9	37.2 8.2	25.2 P 2.1	
<생산> 광공업생산지수	-3.0	-10.4	-3.5	-1.0	19.9	21.1	23.0	11.6	
<법인경상이익-재무성> 전체규모-전체산업	-3.5	-27.3	-0.7	26.0	93.9				
<도산> 기업도산건수(건) 증감률	8,383 1.7	7,773 -7.2	1,751 -20.8	1,554 -28.1	1,490 -18.8	472 50.3	541 -30.6	476 -39.6	466 -30.1
<고용상황> 완전실업률	2.4	2.8	3.0	2.8	2.9	3.0	2.9	2.8	
<물가> 국내기업물가 소비자물가(종합-고정기준)	0.2 0.5	-1.2 0.0	-2.2 -0.8	-0.3 -0.5	4.5 -0.8	5.1 -0.8	5.0 -0.5	5.6 -0.3	P 5.5
<금융> 넛케이평균주가(엔) 환율(엔/\$)	21,697 108.99	22,705 106.73	25,194 104.49	29,001 106.09	28,983 109.50	28,517 109.19	28,943 110.11	28,118 110.29	27,692 109.84

주: 각 수치는 특별한 언급이 없는 경우 전년동기대비 증감률이며, P는 속보치

출처: 일본 내각부 월례경제보고(2021년 7월, 8월, 9월 등) 주요경제지표 중 일부 발췌하여 작성한 것이며, 정확한 수치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일본어 원본을 참조하기 바람

[소비 및 투자 등의 수요]

○ 개인소비는 약세로 움직이고 있음

- 수요측 통계와 공급측 통계를 합성한 소비종합지수는 7월에 전월대비 0.2% 증가함

- ‘가계조사’ (7월)에서는 실질소비지출은 전월대비 0.9% 감소하였고, 판매측 통계인 ‘상업동태통계’ (7월)에서는 소매업판매액이 전월대비 1.1% 증가하였음
 - 실질총고용자소득은 최근 보합권대로 되어 있고, 소비자 심리는 최근 회복 움직임에 답보상태가 보임
 - 최근 상황에 관한 의견을 들어보면, 가전판매는 최근 약세 상태임
 - 신차판매대수는 공급 측면의 영향으로 약세 상태임
 - 여행은 매우 낮은 수준이 계속되고 있고 약세로 움직이고 있음
 - 외식은 긴급사태선언 등의 영향으로 인해 약세로 움직이고 있음
 - 이러한 점들을 고려해 보면, 개인소비는 약세로 움직이고 있음
 - 향후 전망에 관해서는 감염확대 방지책을 강구해 가는 가운데 회복 쪽으로의 방향 전환이 기대되지만, 감염 확대에 따른 하향 리스크가 높아지는 것에 충분히 주의할 필요가 있음
- 설비투자는 회복되고 있음
- 수요측 통계인 ‘법인기업통계계보(季報)’ (4-6월기 조사, 소프트웨어 포함)를 보면, 민간설비투자는 2021년 4-6월기에 전기대비 3.2% 증가하였고,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3.9% 증가, 비제조업이 2.8% 증가하였음
 - 기계설비투자의 공급측 통계인 자본재총공급(국내대상 출하 및 수입)은 증가하고 있으며, 소프트웨어 투자는 완만하게 증가하고 있음
 - 일본은행 短觀(전국기업단기경제관측조사)(6월 조사)에 따르면, 전체 산업의 2021년도 설비투자계획은 증가가 예상되고 있음
 - 短觀에 따른 기업의 설비판단은 여전히 과잉이라는 인식이 남아 있지만 개선되고 있음
 - 선행지표를 보면, 기계수주는 회복 움직임이 보이고 있고, 건축공사비 예정액도 회복 움직임이 보임
 - 향후 전망에 관해서는 장래가 불투명하다는 인식이 남아 있지만, 성장분야에 대한 대응 등을 배경으로 기계투자를 중심으로 회복 경향이 계속될 것이 기대됨
- 주택건설은 최근 회복 움직임이 보이고 있음
- 자가주택의 착공은 최근 회복 움직임이 보이고 있음
 - 임대주택의 착공은 바닥이 견고하게 움직이고 있음
 - 분양주택의 착공은 대체적으로 보합상태임
 - 총 호수는 7월에 전월대비 6.9% 증가하여 연율 92.6만호로 되었음
 - 수도권 맨션 총판매호수는 계약률이 70% 전후로 움직이고 있지만 최근 약세 상태임
 - 향후 전망에 관해서는 회복 움직임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됨

- 공공투자는 높은 수준으로 바닥이 견고하게 추이하고 있음
 - 6월 공공공사 실적은 전월대비 1.2% 증가, 8월 공공공사 청부금액은 전월대비 0.7% 증가, 7월 공공공사 수주액은 전월대비 6.7% 감소로 나타남
 - 향후 전망에 관해서는 관련 예산의 집행에 따라 바닥이 견고하게 추이할 것으로 예상됨
- 수출은 완만한 증가가 계속되고 있고, 수입은 최근 회복 움직임에 답보 상태가 보이고 있고, 무역 및 서비스 수지는 대체적으로 균형이 이루어지고 있음
 - 수출은 완만한 증가가 계속되고 있는데, 지역별로 보면 아시아 쪽 수출은 최근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고, 아메리카 쪽 수출은 최근 회복 움직임이 보이고 있고, EU 및 기타 지역 쪽 수출은 대체적으로 보합 상태임
 - 감염증에 따른 인바운드 쪽 영향에 관해서는 7월의 방일외객수는 2019년 대비 98.3% 감소하였음
 - 수입은 최근 회복 움직임에 답보 상태가 보이는데, 지역별로 보면 아시아 및 아메리카로부터의 수입은 최근 회복 움직임에 답보 상태가 보이며, EU로부터의 수입은 회복 움직임이 보임
 - 무역 및 서비스 수지는 대체적으로 균형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7월 무역수지는 수출금액 증가로 흑자폭이 확대되었고, 서비스 수지는 적자폭이 확대됨

[기업 활동 및 고용]

- 생산은 최근 일부 약세가 보이지만 회복되고 있음
 - 광공업생산지수는 7월에 전월대비 1.5% 감소하였고, 광공업재고지수는 7월에 전월대비 0.7% 감소하였음
 - 제조공업생산예측조사에 따르면 8월은 전월대비 3.4% 증가, 9월은 전월대비 1.0%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업종별로 보면 수송기계는 약세 상태이며, 생산용 기계는 증가하고 있고, 전자부품·디바이스도 증가하고 있음
 - 생산의 향후 전망에 관해서는 회복이 계속될 것으로 기대되지만, 감염증에 따른 서플라이 체인에 대한 영향 및 반도체 부족에 따른 영향, 해외경제의 하향 리스크에 충분히 주의할 필요가 있음
- 기업 이익은 감염증 영향으로 비제조업의 일부에서 약세가 남아있지만 회복되고 있으며, 기업의 업황 판단 경우는 일부에 엄중함이 남아 있지만 회복 움직임이 보이고 있고, 도산건수는 감소하고 있음
 - ‘법인기업통계게보(4-6월기 조사)’에 따르면 2021년 4-6월기 경상이익은 전년대비 93.9%, 전기대비 1.8% 증가로 나타남

- 기업의 업황 판단에는 일부에 엄중함이 남아 있지만 회복 움직임임 보이고 있음
- 도산 건수는 감소하고 있는데, 7월 476건, 8월 466건으로 나타남
- 고용 상황은 감염증 영향으로 약세로 움직이고 있는 가운데, 구인 등의 움직임에 바닥이 견고한 모습이 보임
 - 완전실업률은 7월에 전월대비 0.1% 포인트 하락하여 2.8%로 됨
 - 노동력 인구 및 취업자수는 증가하였고, 완전실업자수는 감소하였음
 - 고용자 수는 최근 보합권내에 있으며, 신규 구인 수 및 유효구인배율은 보합권내로 되어 있으며, 제조업 잔업시간은 회복되고 있음
 - 임금 경우는 정기급여 및 현금급여총액에 회복 움직임이 보이고 있고, 그 결과 실질총고용자소득은 최근 보합권내로 되어 있음
 - 일본은행 短觀(6월 조사)에 따르면 기업의 고용인원 판단은 부족초과로 나타남
 - 향후 전망에 관해서는 바닥이 견고하게 추이할 것으로 기대되지만, 고용조정 상황에 따라 약세가 커질 우려도 있기에 감염증 영향에 충분히 주의할 필요가 있음

[물가 및 금융]

- 일본 국내기업물가는 상승하고 있고, 소비자물가는 최근 바닥이 견고한 모습이 보임
 - 8월 국내기업물가는 전월대비 0.0%이고, 수입물가(엔 기준)는 상승하고 있음
 - ‘신선식품 및 에너지를 제외한 종합’ 기준 소비자물가는 정책에 따른 특수요인을 제외하면 최근 바닥이 견고한 모습이 보임
 - 물가상승을 예상하는 세대의 비율을 ‘소비동향조사(2인 이상 세대)’로 살펴보면, 8월에는 전월대비 0.8% 포인트 하락하여 78.5%로 됨
 - 향후 전망에 관해서는 소비자 물가(신선식품 및 에너지를 제외한 종합)는 정책에 따른 특수요인을 제외하면 당분간 바닥이 견고하게 움직일 것으로 예상됨
- 주가(닛케이평균주가)는 상승추세를 보였고, 엔/달러 환율은 109엔대에서 110엔대로 추이하고 있음
 - 주가는 27,600엔대에서 30,600엔대로 상승함
 - 달러대비 엔화의 환율은 109엔대에서 110엔대로 추이함
 - 단기금리를 보면 무담보콜금리는 -0.03%대에서 -0.00%대로 추이함
 - 기업금융에 관해서는 기업의 자금운용 상황은 개선되고 있지만, 숙박·음식서비스 등에서는 여전히 엄중함이 보이고 있음
 - 금융기관의 대출 평균잔고(전국은행)는 전년대비 0.3%(8월) 증가하였음
 - 머니트리 베이스(본원통화 평균잔고)는 전년대비 14.9%(8월) 증가하였고, M2는 전년대비 4.7%(8월) 증가하였음

□ 일본 정부의 2021년 9월 정책 방향 (내각부 월례경제보고, 2021년 9월 16일)

- 일본 정부는 2011년 동일본 대지진으로부터의 부흥·창생, 그리고 점점 심각해지고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재해에 대한 대응을 함과 더불어, 결코 디플레이션으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결의를 가지고 COVID-19 감염대책에 최선을 다하는 가운데, 고용 확보와 사업 계속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생활을 지켜나가고자 함
 - 또한 ‘경제재정운영과 개혁의 기본방침 2021’ 등에 기반하여 그린, 디지털, 활력 있는 지방 만들기, 저출산 대책 등 네 가지 과제에 중점적인 투자를 실행하여 오랫동안의 과제에 대한 답을 제시하고 강인한 성장을 실현함
- COVID-19 감염증에 대해서는 19도도부현(都道府県)을 대상으로 긴급사태조치, 8개 현을 대상으로 만연방지등중점조치를 9월 30일까지 실시하기로 하였고(※ 이후 실제 9월 30일로 모두 종료), 계속 의료제공체제의 확보, 감염방지대책의 철저화, 백신접종의 추진, 이 3개를 기둥으로 하는 대책을 확실히 추진함
 - 경제에 대한 영향에 대해서는 중점적이고 효과적인 지원에 최선을 다해 나감
 - 또한 백신 접종의 진척 상황을 바탕으로 국민적 논의를 진행하여 감염 대책과 일상 생활 회복을 위한 대책의 양립을 추진함
 - 나아가 성장분야에 대한 민간투자를 대담하게 불러일으키면서 생산성을 높이고 임금의 지속적인 상승을 촉구하여 민간수요 주도의 성장궤도 실현에 연결시킴
 - 정부는 2020년도 제3차 보정예산 및 2021년도 예산을 신속하고 적절히 집행함
 - 앞으로도 계속 감염상황 및 경제적인 영향을 주시하면서 상황에 맞게 예비비의 활용을 통하여 임기응변적으로 필요한 대책을 강구해 감과 더불어 자율적인 경제성장을 위해 주저 없이 기동적인 매크로 경제정책 운영을 실행해 나감
- 일본은행에 있어서는 기업 등의 자금 운용 지원에 최선을 다함과 더불어, 금융시장의 안정을 유지한다는 관점에서 금융완화를 강화하는 조치가 취해져 있음
 - 일본은행에 대해서는 감염증의 경제에 대한 영향을 주시하고, 적절한 금융정책 운영을 실행하여, 경제·물가·금융상황을 고려하면서 2%의 물가안정 목표를 실현할 것을 기대함

2. 일본경제 최근 동향

□ 경제 관련 정책 및 동향

- 세제개정에 대한 부처별 요구 및 COVID-19 백신 접종 관련 경제계 인식
 - 2022년도 세제개정에 관한 일본정부 각 부처들의 요구는 다음과 같음
 - 후생노동성은 COVID-19으로 인한 생계곤란자를 위한 ‘긴급소액자금’의 특례대부에 관한 비과세 조치를 요구하였음
 - 국토교통성은 항공 업계에 대한 지원책으로 항공기 연료세의 경감 조치 연장을 요망하였으며, 환경성은 탄소세의 본격 도입 등을 요구하였음
 - 총무성과 경제산업성은 5G의 통신망 정비를 재촉하는 감세에 대한 기한 연장을 요구하였음
 - 일본 상공회의소 미무라 아키오 회장은 9월 2일 기자회견에서 COVID-19 백신 접종을 한 사람에게 우대 조치를 하는 시책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나타냈음
 - 경단련은 6월에 접종 완료율 나타내는 증명서인 백신 여권의 조기 활용을 요구하는 제언을 발표했음
- 디지털청 출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과제 및 자율 주행에 대한 검토
 - 2020년 COVID-19 사태에 대한 온라인 보조금 신청 지체 등 일본의 디지털화 지연 현상에 대한 반성을 바탕으로 스가 내각은 행정의 디지털청 설치를 내세웠음
 - 9월 1일 디지털청이 출범하였으며, 디지털청 직원 600여 명 중 200여 명이 민간 출신으로 디지털청은 행정 절차의 간소화 등에 대처함
 - 2021년도 경제재정보고(경제재정보고)에서는 성장에 대한 과제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DX)의 지연을 꼽았음
 - 기업의 DX 도입 상황 조사에 의하면 대기업과 중소기업에서 대처의 정도에 차이가 생기고 있었으며, 인재가 부족하다는 응답이 55%로 나타남
 - 국토교통성은 안정성 기준 제정의 일환으로 보행자가 갑자기 튀어나오는 등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시스템이 어디까지 책임져야 하는지 등에 대한 본격적인 검토를 내년부터 시작할 방침임
- 탈탄소 및 전력부족 문제
 - 경제산업성은 9월 13일 전문가회의에서 카본 재활용 기술 등의 개발에 최대 1,829억 8천만 엔을 배분할 방침을 밝혔음
 - 이산화탄소를 흡수해 봉쇄하는 양을 최대화하는 생산법 확립, 시멘트 제조 과정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 회수 기술, 이산화탄소에서 폴리카보네이트 등 화학품을

제조하는 기술, 폐플라스틱이나 폐고무로부터 플라스틱 원료를 만드는 기술 등이 주된 배분액 내역임

- 경제산업성이 8월 말에 발표한 2022년도 전력수급 예상에 의하면 여름과 겨울에 전력이 부족할 것이라고 예측되었는데, 단일연도가 아니라 수 년간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 신재생에너지 도입확대 및 석탄화력의 단계적 폐지방침에 따른 화력발전소의 휴폐지, 원자력발전소의 재가동 지연 등이 요인이라고 함

(출처: 요미우리신문, 2021.09.02.; NHK, 2021.09.06.; 닛케이신문, 2021.09.24.; 아사히신문, 2021.09.02.; 산케이신문, 2021.09.13.)

□ 한일 관계

○ 한일축제한마당 온라인 개최 및 한일 외무장관 회담

- 한국과 일본 정부 지원으로 매년 도쿄와 서울에서 열리고 있는 한국과 일본의 문화 교류행사인 한일축제한마당이 올해도 온라인 형식으로 개최되었음
- 양국에서 이루어진 행사들은 공연, 퀴즈대회, 전통의상 소개 등으로 구성되었음



출처: 한일축제한마당 in Seoul_日韓交流おまつり in Seoul(<https://www.youtube.com/watch?v=mi4NoSF-t4I>)
 オンライン駐日韓国文化院(<https://www.youtube.com/watch?v=4KlK8isBaGc>)

- 9월 16일 외무성에서 한국과 일본의 외교 당국 간 국장급 협의가 진행되었으며,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한일, 한미일 협력이 중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음
 - 9월 23일 미국 뉴욕에서 한일 외무장관 회담이 이루어졌으며, 한일 관계 건전화를 위해 외교 당국간의 협의 등을 통한 의사 소통을 촉진시키는 것에 일치했음
- 징용관련 소송 문제 및 독일 미테구 소녀상 문제
-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위안부 소송에 대한 배상을 일본정부에 명령한 1월의 확정판결을 두고 배상에 응하지 않는 일본 정부에 대해, 내년 3월 21일 일본 정부의 한국 내 보유자산 목록을 법정에서 공개하도록 기일을 지정한 것으로 9월 1일 알려짐

- 가토 가쓰노무 관방장관은 9월 2일 기자회견에서 한국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일본 정부의 보유자산 목록 공개 기일을 지정한 것에 대하여 항의하였음
 - 9월 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징용공 유족의 일본제철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배상청구권이 시효 성립으로 소멸되었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음
 - 2020년 독일 베를린시 미테구에 설치된 소녀상에 대하여 구청이 설치 허가를 최대 1년간 연장하는 것을 결정하여 일본 정부가 항의한 것으로 9월 5일 알려졌다
- (출처: 산케이신문, 2021.09.01., 2021.09.02., 2021.09.05., 2021.09.23.; 요미우리신문, 2021.09.09.; NHK, 2021.09.05., 2021.09.11., 2021.09.17.; 마이니치신문, 2021.09.24.)

3. 일본기업 최근 동향

□ 제조업의 서비스화 및 수소산업 동향

○ 제조업의 서비스화 및 기업물가지수

- 오늘날 제조업은 서비스와의 통합에 의한 새로운 부가가치 제공이나 고객 가치 향상에 임하지 않는다면 성장하기 어려움
- 일본 제조업에서 부수 서비스를 제공하여 사업을 전개하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음
- 산업기술종합연구소, 메이지대학, 13개 기업 등이 참가하는 ‘제조업의 서비스화 컨소시엄’은 경영공학적인 시점을 도입하면서 비즈니스의 혁신에 임함
- 컨소시엄은 참가하는 연구자의 성과로부터 고부가가치 서비스 실현을 향한 기술, 비즈니스 방법, 인재육성 커리큘럼의 표준화를 추진하며, 사례 연구나 기술 등의 정보 교환과 지식 공유도 진행함
- 일본은행이 발표한 기업물가지수(기업간에 거래되는 물건값을 나타내는 지수)는 2020년 동월보다 6개월 연속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 기업물가지수의 상승은 해외에서 경제활동이 본격적으로 재개되고 국제 수요가 늘면서 유가와 구리가격이 높게 유지되고, 목재, 알루미늄, 니켈 등 원자재 가격도 상승하고 있기 때문임

○ 수소 관련 기술 개발과 수소 제조

- 전원개발(J파워)은 9월 8일 치가사키시의 연구소에서 수소를 사용한 연료 전지로 드론을 날리는 실험을 실시하였음
- 전원개발은 가와사키중공업 등과 공동으로 오스트레일리아에서 갈탄을 가스화해 수소를 정제하여 초저온의 액체 수소로 하여 일본에 수송하는 실증 실험을 실시하고 있음
- 도레이는 9월 6일 지멘스에너지와 전략적 파트너십 계약을 맺었다고 발표했는데, 도레이가 수소 추출의 핵심 부품인 전해질막을 개발하고 지멘스가 장치로 완성하며, 양사는 수소의 국제 공급망 구축에서도 협력함

- 도레이는 도쿄전력홀딩스와 야마나시현과도 그린수소를 제조하는데, 도레이가 히타치 조선과 지멘스에너지의 일본법인과 장치를 개발하고 운용은 도쿄전력홀딩스가 맡음
- 아사히카세이는 수소제조장치의 대형화에 힘쓰고 있으며, 도시바에너지시스템즈가 연료배터리 기술을 응용한 고체산화물형 전해셀의 개발을 추진하고 있음
- 산업기술총합연구소(AIST)와 대기업 건설 회사 등은 이산화탄소 배출 삭감을 위해 태양광 발전과 수소에너지를 조합하고 건물에 전력을 공급하는 시스템의 실증 실험을 후쿠시마현 고리야마시의 종합지방도매시장(郡山市総合地方卸売市場)에서 2년간 실시했으며,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53% 감축할 수 있었음
- 이와타니산업, 가와사키중공업, 간사이전력, 마루베니는 9월 15일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수소를 제조해 일본에서 수입하는 사업을 위한 조사를 개시한다고 발표하였음
(출처: 마이니치신문, 2021.09.10.; 산케이신문, 2021.09.14., 2021.09.15.; NHK, 2021.09.13., 2021.09.16.; 닛케이신문, 2021.09.04.)

□ 조선산업과 자동차산업 관련 동향

○ 일본 조선산업 동향

- 상선미쓰이는 9월 14일 북극해항로 사업을 위해 LNG운반선 4척을 새로 건조한다고 밝혔는데, 4척 모두 한국의 대우조선해양에 발주함
- 지금까지는 쇠빙LNG선으로 생산거점에서 수요지까지 수송해왔으나, 앞으로는 쇠빙 LNG선으로 극동지방에서 유럽의 LNG저장시설로 LNG를 수송한 후 이를 LNG운반선에 다시 적재해서 수요지까지 수송함으로써 수송 효율성을 높임
- 국토교통성은 9월 14일 재팬마린유나이티드, 가와사키중공업, 오시마조선소, 미우라조선소 등 조선 4사가 제출한 사업기반 강화 계획을 처음으로 인정했는데, 정부계 금융기관에 의한 저리 융자나 세 부담 경감의 지원책을 받게 됨
- 중국이나 한국에 밀리는 국내 각사의 대처를 지지하는 목적이 있는데, 국토교통성에 의하면 일본의 조선산업 점유율은 1990년대 초까지는 50%에 육박하였으나, 점유율이 떨어져 2019년에는 중국 34%, 한국 32%, 일본 24%임

○ 자동차산업의 탈탄소화 대처 및 반도체부족과 COVID-19로 인한 생산량 감산

- 토요타자동차는 판매금융 자회사인 토요타파이낸셜서비스의 현지법인을 통해 한국 SK그룹의 중국 지주회사인 SK차이나로부터 중국 리스 사업을 인수함
- 일본자동차공업회의 토요타 아키오 회장은 9월 9일 기자회견에서 일본정부의 온실효과가스 삭감 목표에 대하여 일본정부가 카본 뉴트럴의 목표를 만들 뿐만 아니라,

필요한 비용이나 고용에 미치는 영향 등을 근거로 하여 실정에 따른 형태로 논의가 깊어져야 한다는 생각을 나타냈음

- 일본자동차공업회는 자동차산업 전체의 에너지 소비량과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시산하여 탈탄소 사회 실현을 위한 과제를 정리할 방침임
- 한편, 반도체 부족과 동남아 지역의 COVID-19 사태로 부품 조달이 어려워져서 자동차산업의 감산이 심각해지고 있음
- 토요타자동차, 스즈키, 스바루, 혼다 등은 모두 생산량을 줄였음
- 전동차 전용 차재전지를 둘러싼 자동차 메이커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데, 일본계 메이커에서는 토요타자동차가 2030년까지 전지의 개발과 생산에 함께 1조 5000억 엔을 투자한다고 표명하였음
- 혼다는 GM과 전기자동차의 차대 및 모터 등 주요 부품을 공동화해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는 한편, 작년에 중국 닝더스다이신에너지과학기술(CATL)의 주식의 약 1%를 취득하고 2022년부터 배터리를 공급받을 계획임
- 닛산은 프랑스의 르노, 미쓰비시자동차와 기업연합(alliance)을 맺으면서, 약 20%를 출자하는 중국계 전지 메이커인 엔비전AESC재팬이 일본에 신설하고 2024년 가동예정인 공장으로부터 전기자동차 전용 차세대 리튬 이온 배터리를 조달할 계획임

(출처: 닛케이신문, 2021.09.09., 2021.09.14.; 아사히신문, 2021.09.09., 2021.09.24.; NHK, 2021.09.09.; 산케이신문, 2021.09.27.; 요미우리신문, 2021.09.15)